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고령화 사회에 따른「주택연금」 활성화 방안 추진

□ **고령화 사회의 도래되면서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 07.7월 주택연금(역모기지) 제도가 도입되었으며, 초기 본 제도 정착에는 성공적이라는 평가임.**

o 계약기준에 따른 공급실적이 07.7~12월까지 515건으로 6,025억원을 시현하였으며, 08년에는 695건으로 8,633억원을 기록함.

□ **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층의 소득원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 증가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**

o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'60세 이상'으로 완화하고,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여 주택가치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,

o 혼합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수시인출 비율은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현행 30%에서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50%(최대 2.5억원)로 확대함.

o 본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이자비용 소득공제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시행 중이며, 세제지원 대상 주택을 보다 확대할 계획에 있음.

□ **정부는 09.4월말까지 가입연령 완화 등과 같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연금 관련 제도 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임.**

o 현재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관계부처와 지난 14일 협의를 마쳤으며, 입법예고(09.2.19~3.11) 예정에 있음.

o 재정부·행안부 등은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(소득세법 시행령·지방세특례제한법) 개정을 추진 중임.

(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등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, 2/18)